

# 주택문제를 통해 보는 판이한 두 제도

## 나라에서 집을 주는 인민의 세상

사람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은 인간의 안식처이고 한가정의 요람이며 생활과 웃음이 꽃피는 터전이다. 집이 없으면 가정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등지없는 날새와 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예로부터 《설움중에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고 했고 《어려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 《제 집은 담백만 보아도 말이 낫는다.》는 말도 전해져왔다.

하지만 파스한 보금자리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은 인간의 지성이 우주에 사람이 들 정류소를 만드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섞인 한숨소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울려나오는 지금 집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해결되어가고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조선이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것이 중요한 국책으로 되어오고있다.

지구상에는 인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니 한생 뼈빠지게 일을 해도 똑똑한 제 집 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사람



송화거리



삼지연시

들이 집없이란 말조차 모르 고있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2012년 평양 창전거리에 새 집들이를 한 로동자의 집을 찾은 어느 한 외국인이 집 평방수와 집값이 얼마인고 물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집을 주는 공화국에서 로동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

그후 귀국한 그 외국인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의 평방수와 값을 모르는 《행복한 바보》들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리 유리를 모르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인것 같다.》

그러자 함께 북을 다녀온 옆의 동료가 한마디 더 보았다. 《북주민들은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것을 그저 받으면서도 돈 한푼 안내는 《량심없는》 사람들이다.》

최근년간에만도 공화국에

서는 미려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건설되고 삼지연시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되었으며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재해지역 등 곳곳마다 현대적이고 훌륭한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섰다.

얼마전에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아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서 새 집들이가 진행되어 온 나라가 흥성하였다.

황홀한 새 거리, 새집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로동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일어난 사람들과 놓고보 아도 그렇다.

직기앞에서 온종일 달리고 도 퇴근시간이 되면 떠나기 아수해하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 리명순, 40여년간 두줄기 케도를 따라 달린 평양철도국 서평양리관차

대 기관사 김명원, 눈비오고 바람세차도 어느 하루 빠진 없이 도로관리를 해온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의 조길녀, 수십년간 《웃음배낭》을 메고 정제선들의 복소리를 울려온 중앙예술경연전대의 배우 리순홍, 림문무케도전차사업소의 공훈자동차운전자들인 최홍기, 허명금부부, 수십년세월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들인 한철호, 문성심부부...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꿈같은 현실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는가. 진정한 조국은 인민을 하찮게 떠보는 나라라는 진정한 목소리를 이 땅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출분 아니라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들을 안겨주고 있다.

《북사람들 정말 좋겠다. 저런 고급아파트에서 다 살

고.》,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나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북은 웃으면서 새 아파트도 무상으로 받고 정말 잘사네.》...

이것은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훌륭한 살림집들에 입주하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 보여 준조선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중의 일부이다.

공화국이 모든것이 풍족해서 인민을 위한 변화가,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이 땅의 전체 인민은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생도록, 대를 이어 보답의 한길을 걸어갈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집 아닌 쉼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절규

세상을 둘러보면 다양한 건축형식과 특색을 가진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집은 많이 지어도 집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줄어 들지 않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남조선의 실패한 농고보더라도 돈 많고 권력있는자들은 집을 몇채씩이나 소유하고 부동산 산투기행위를 하면서 땅명거리고 살고있지만 돈없고 최하층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집 아닌 《집》에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2월중순부터 3월중순사이 남조선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산불은 2만 4 000ha의 산림과 수많은 살림집들을 사정없이 불태웠다.

《살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빛을 내어 불탄 집을 다시 지라고 한다.》, 《정부가 쫓겨면서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고령층이 어떻게 이 빛을 갈을수 있느냐.》, 《결국 값지도 못할 빛으로 집을 짓는것이고 이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빚이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이것이 대규모산불이 가져다준 재난으로 집을 잃고

고통과 절망속에 몸부림치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호소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주택가격이 너무도 비싸고 그마저도 해마다 경총경총 뛰여올라 주민들속에서 제 집 마련은 꿈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엄청난 집값을 벌수가 없어 초보적인 후생시설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집 아닌 쪽방에서 생살살이하고 그 월세마저도 물지 못해 가족이 불뿔이 갈라져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청년들속에서는 집을 도저히 구할수가 없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이 날로 늘어나 사회적문제조까지 되고있다.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집없는이들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있다.》...

2018년 11월 9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이후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라는 절규는 계속되었지만 사회의 방치와

외면속에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대시 인명사고가 났다.

이 고시원의 월사용료는 20만원으로 주로 일용직로 동자들이나 저소득고령층이 머무르는 곳이었다. 고시원의 면적은 191.04㎡, 여기에 방은 33개나 있었다. 위생실, 주방, 복도 등을 제외하면 방 한개의 면적이 3.3㎡정도였다. 일부 방에는 창문이 없었고 창문이 있었다라든 크기가 작아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거나 사람이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한다.

자료를 의하면 남조선에서 안전하지 않은 고시원은 2010년에 8 273개이던것이 2021년에는 1만 1 734개로 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언론들은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법, 제도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평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쪽방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남조선인민들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 불화리 불수



현대적인 통신수단이 없었던 옛날 우리 선조들은 역참제도와 함께 봉수제도를 세워 긴급통신을 보장하였다.

우리는 옛 봉수제도의 일면을 알수 있게 하는 강동군의 불화리 봉수로 향하였다.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에게서 봉수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봉수제도는 산봉우리에 설치된 봉수대를 리용하여 국경이나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상정황을 불을 피워 밤에는 불빛

으로, 낮에는 연기를 피워보는 방법입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봉수대가 평안도 134개, 함경도 218개, 황해도 39개, 강원도 48개, 경기도 40개, 충청도 38개, 경상도 143개, 전라도 50개, 제주도 23개 등 도합 733개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그는 봉수신호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당시의 봉수신호체계는 봉수대에 설치된 5개의 화독중 정해진 한개만 불과 연기를 피워 봉위군의 정상군무정황을 알리고 나머지 4개는 비상경보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게 되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외적이 나타나면 2개, 국경가까이에 침입하면 3개, 국경을 침범했으면 4개,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있으면 5개의 봉수를 올려 신호하는 방식으로 연락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봉수

를 직접 보면서 옛날의 통신방식에 대한 선명한 표상을 가질수 있었다.

불화리봉수는 동헌형제의 화독으로 되어있었는데 연기의 분산을 방지하려고 우로 올라가면서 점차 좁혀진 모양이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봉수지에는 당시 나라에서 지은 3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방 2칸과 부엌이 1칸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책임자직의 봉수별장과 20~30명정도의 봉수군사들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림금석실장은 말하였다.

《불화리기는 매일 저녁 화광이 보일 정도가 되면 봉화를 올렸고 평양에서 봉화가 오르면 여기와 중화의 봉화가 올라 점차 서 올라가았습니다. 1866년 미제침략선 《서민》호가 대동강에 침입하였을 때에도 봉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불화리봉수가 선조들이 창조한 훌륭한 통신력체계인 봉수제도와 체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적임을 잘 알수 있었다.

장숙영

걷기운동은 날이 갈수록 《무병장수요약》으로 그 실용성이 광범히 인정되고있다.

걷기운동을 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허리힘이 세지며 온몸의 협살이 단련되면서 몸안의 장기들도 튼튼해진다.

또한 비만증과 나이가 들면서 오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비롯한 난치의 병들도 막을수 있다.

그것은 걸음을 걸을 때 심장이 센 수축력을 얻게 되며 몸에서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게 됨으로써 심장의 기능이 높아지고 폐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있다.

한편 걷기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뇌의 활동을 높여줌으로써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을 높여준다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업의욕과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봉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한걸음의 폭을 보통 75cm 정도로 하는데 젊은이들은 1분동안에 120~140걸음, 중년인 경우 90~120걸음,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70걸음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나이와 몸상태의 고려가 없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걸음의 속도와 거리를 늘여야 한다.

걷기운동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처음에 다리땀이 없어지는것같으나 한달정도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본사기자

## 사화

### 돌날거리 (2)

그림 채대성

그날 저녁이었다.

돌쇠 아버지와 돌쇠 어머니는 마주앉아 돌날거리와 곡식날거리를 바꾸자는 지주들의 배수를 도무지 알수 없어 반세도록 의논했다.

그러다가 돌쇠 어머니가 좋은 생각을 내놓았다.

《여보, 이렇게 합시다. 정 그림감이 바꾸자고 하면 바꿈시다. 그러나 셋이 아니라 자꾸 울려서 뿔수 있는대로 많은 날거리하고 바꾸시다. 아무래도 저 돌날거리가 욕심나는 모양이니 비싸게 굶시다. 그리고 뒤걸음질 못하게 많은 동네사람들앞에서 계약까지 하고 도장을 받으시다.》

돌쇠 아버지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쇠 어머니의 말대로 바꾸기로 작정하고 자리에 누웠다.

돌쇠네 집에서 돌아간 지주는 그날 저녁도 어제 저녁처럼 일찌감치 밥을 먹고 집뒤뜰에 나가 입을 해 벌리고 돌쇠네 집쪽을 건너다보았다.

어제 밤에 저녁을 먹고 뒤울안을 거닐던중 지주는 마을 한골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돌쇠네 집이었다.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등잔불을 켜는가보다 하고 무심히 생각했으나 다시 눈여겨보니 돌쇠네 집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비쳐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놈들이 먹을것도 없더니 제사까지 지내는가. 어디 보자!》

황지주는 제사를 지내고있는줄로만 생각하고 살금살금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생각밖으로 그것은 돌날거리에서 내뿜는 불빛이었다.

《흥지, 금이다. 금덩어리구나. 저 돌머더기속에 금덩어리가 묻혀있군.》

그는 군침까지 꿀꺽 삼키고 돌

아섰다.

《평창하 큰 금덩어리가 틀림없군. 저 빛을 보니 한두개도 아니다. 돌날거리가 거의다 금일지도 몰라.》

지주는 온밤 닭알성을 쌓기에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제법 제것이나 된듯이 서울에 다 아흔아홉칸짜리 기와집도 짓고 첩도 맞아들이고 한뼉 잘먹고 잘살아보자고 손가락까지 굶혔다 폼다하면서 중리했다.

(저 돌날거리를 주지 않겠다면 내 재산을 몽땅 주고라도 바꿔야지...)

《돌쇠 아버지가 날거리를 바꾸겠으니 얼른 올라오십시오.》

지주는 머슴이 전하는 말을 듣자 신발도 제 꿰지 않은채 바지피복을 한손으로 붙잡고 돌쇠집으로 뛰어갔다. 가면서 그는 (그렇겠지. 이놈, 내게 속지 않은놈이 어디 있더구.) 하며 코방귀까지 뀌었다.

지주가 돌쇠네 집에 갔을 때에는 벌써 동네사람들이 어련아 이들로부터 늄은이에 이르기까지 모여있었다.

지주는 위풍을 두드르라고 금한 마음을 누갓거리 천천히 돌쇠

제 집에 날아든 북을 방망이로 쳐 내쫓는 미물이야.)

그는 속으로 돌쇠 아버지를 비웃기까지 하면서 머슴들을 시켜 돌날거리를 허물어지게 하였다.

동네사람들이 돌쇠네를 도와서 지주집 날거리를 현어 옮기려고 하자 황지주는 한 날거리에서 벼심 하나씩을 떼어냈다. 그래야 북이 안나간다는것이였다.

돌쇠 아버지도 돌날거리에서 제일 위에 놓인 큰 돌을 떼어내어 안아다가 부엌안에 들여놓았다.

돌쇠네 집사람들은 그날 저녁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쌀밥을 지어 먹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어둑새벽에 일어난 돌쇠 아버지는 방안이 불빛에 환해진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여 급히 부엌으로 뛰어내려가 보았다.

한데 이게 웬 일이나! 돌날거리에서 안아다놓은 큰 돌이 빛을 뿜고있는것이 아닌가.

돌쇠 아버지는 그 돌을 덥석 안고 소리를 쳤다.

《금이야, 금!》

하지만 돌머더기를 날라간 황지주네 집에서는 댄 일이 벌어졌다.

황지주는 마당에 돌머더기를 쌓아놓고 어둑기를 기다려 이리저리 돌아보았으나 불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두바퀴 세바퀴 돌아치면서 어디서 불빛이 비치지나 하고 돌아갔건만 점점 어두워가는 밤하늘에 시꺼먼 돌머더만 솟아있을 뿐이었다.

속이 안달아난 그는 머슴을 시켜 돌머더를 헤치고 하나하나 살펴보았건만 금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황지주는 밤을 꼬박 새워 새벽까지 돌을 이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하였다.

술개불마을사람들은 마음세척한 돌쇠 아버지가 나누어주는 벼날거리와 돌쇠의 주먹만큰씩한 금덩어리 하나씩 지니고 웃음꽃을 피우며 화목하게 살아갔다.

(끝)

